

민주당 후보 적용 기준 '고무줄 잣대'

지방선거 부적격 인사 복당·실행 선고 인사 심사 통과 시·도당 의견·지역여론 목살... 중앙당 입맛대로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6·13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예비후보들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고무줄 잣대'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방선거 거임에도 시·도당의 의견과 지역여론을 목살하는 등 중앙당의 독단과 횡포가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6일 광주·전남 지역선거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예비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중이다. 하지만, 심사가 원칙도 없이 중앙당 입맛대로 진행되고 있어 해당 후보와 지역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민주당은 하향식 공천을 한다며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공천을 시·도당에 맡겼으면서도, 시·도당에서 부적격으로 처리한 인사를 중앙당에서 복당 처리하거나 후

보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배용태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전남도당에서 복당 불허 처리했지만, 중앙당 당원 자격심사위원회에서 복당을 받아들였다.

장만재 전 전남교육감도 이개호 전남도당 위원장 등이 입당을 강력 반대했음에도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입당 처리했다가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보류된 상태다.

예비후보자 검증 기준도 '고무줄'이다. 민주당 예비후보 검증 기준안에 따르면 부정부패인 뇌물수수 금고 및 징벌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부적격 기준에 포함된다. 또 음주운전·성범죄 등의 기준도 강화했다. 집권여당으로서 도덕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실제 적용은 중앙당 입맛대로

다. 뇌물수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충훈 순천시시장의 경우 전남도당이 보류 결정을 내리고 중앙당의 정밀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하지만, 중앙당 최고위원회의의 적격 심사를 통과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입당이 보류된 장전 교육감은 지난해 2월 대선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초청해 강연한 것이 '해당행위'로 간주돼 입당 발목이 잡히고 있다.

최고위원들은 장전 교육감의 입당 보류 결정을 하면서 "호남에서 원칙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진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선거의 한 관계자는 "후보자가 없을 경우 부적격자라도 입당 또는 영입할 수 있다"며 "하지만 광주·전남의 경우 후보자가 넘쳐나고 신인들도 상당수 있는 상황에서 원칙없는 후보자격 심사, 복당 허용이 잇따라 지역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민주 광주시장 후보 4인 '이용섭 후보자격 박탈' 재차 요구

강기정·민형배·최영호·윤장현 회견

강기정·민형배·최영호(가나다 순) 예비후보와 윤장현 광주시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선거 출마예정자 4명은 27일 경쟁 주자인 이용섭 예비후보에 대한 중앙당의 경선 자격 박탈을 재차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당원명부 불법유출과 활용은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자를 결정하는 선거인단에 대한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자 '담안자를 들고 시험을 치는 부정행위'에 다름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이 후보에 대한 예비후보 자격 박탈이야말로 민주당에 대한 광주시민의 신뢰를 깨트리지 않고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 후보는 자신의 명의로 발송한 문자가 일자리 창출에 관한 국정홍보 내용이었다고 강변하지만, 해당 문자를 경선 선거인인 광주시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발송한 이유를 해명하지 않고 있다"며 "국정과제에 관한 내용을 보내면서 일자리위원회의 비용이 아닌 개인 비용으



더불어민주당 강기정(왼쪽부터), 민형배, 최영호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27일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당원명부 유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 지출한 이유에 대해서도 아직 해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일련의 상황은 이 후보가 수사를 지연시킨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경찰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광주경선의 충분한 검증과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사실에 부합한 절차를 보장해 줄 것"을 중앙당에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강기정·민형배·최영호 예비후보만 참석했고 윤 시장은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들은 회견 후 국회 인근에서 모여 향후 공동 행동 방향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들은 후보단일화 여부와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후보 간 입장차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시 세계김치축제 총감독 공개 모집

광주시는 제25회 광주세계김치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역량 있는 총감독을 공개모집한다. 총감독은 제25회 광주세계김치축제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책임 기획, 행사장 공간 구성, 행사 운영 총괄 및 축제 콘텐츠 확장을 위한 외부 협력 관계 구축, 대외 홍보 등 업무를 맡는다.

응모신청은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는 광주시 생명농업과(613-3992)로 하면 된다.

올해 김치축제는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열리며, 김치 관련 전시, 대한민

국 김치 경연대회를 비롯한 경연, 김치와 우리 농식품 마케팅, 다양한 김치요리 체험 행사 등 연계행사가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광주세계김치축제가 새로운 콘텐츠로 행사장을 찾는 방문객에게 다양한 정보와 참여의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전국의 역량 있는 행사 기획자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6·13 선거 현상

구청장·시장·군수 후보

김영남 "서구에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유치"



김영남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가 27일 "호남의 중심 서구에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유치 장소는 마북동 공공주택과 이전부지 개발 계획과 관련해 '미래교육문화권'사업과 맞물려 추진하는 방안과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중앙공원에 공공기관을 유치해 중앙공원 민간개발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립중앙도서관의 발전이 경제 분야를 포함하는 사회 전반에 걸친 선진화로 상향된 국민의 정보욕구에 절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사실은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으며, 수도권에 집중돼 이를 분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성철 "호남민 명령 정권교체 뜻 이어갈 것"



조성철 더불어민주당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가 27일 "문재인 대통령 광주경선 승리 1주년을 맞아 호남시민들의 명령인 정권교체 뜻을 이어갈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지난 2017년 3월 27일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진행된 19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호남권역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60.2%의 득표율을 얻었다"면서 "광주시민들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경선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뜨거운 정권교체의 열원을 보내며 힘을 실어줬다"고 말했다. 또 "당시 저도 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광주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정권교체의 밑거름이 되려 했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잊지 않고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인 "주차장 등 생활편의시설 확충할 것"



문인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27일 "북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주차장, 도서관, 공공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북구 전역에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기지형, 경제기반형 등 5개 사업유형별로 나누어 추진하겠다"며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전국 제1의 도시재생 선진 자치구로 만들겠다"는 강조했다.

또 "북구가 민선2기부터 꾸준히 추진해 온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권오봉 "대통령 개헌안 발의 적극 지지"



권오봉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예비후보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국민중심개헌은 국정농단과 헌법파괴 세력에 맞서 싸웠던 촛불민심을 그대로 헌법에 반영하는 일이다"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의 이익을 위한 개헌이며 특히 지방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개헌안에 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추진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자치분권회의를 두는 등 지방분권구기를 지향하는 것은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여수=김창화기자 chkim@kwangju.co.kr

양파 과잉생산 우려... 전남도, 조생종 9000t 시장격리

가격 안정위해 선제 수급 조절

전남도가 올해 양파가 과잉 생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 수급대책을 통해 양파 가격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양파 가격이 좋았던 영향으로 올해 전국 양파 재배 면적이 평년보다 17% 늘어난 2만 3114ha 규모다. 생산량도 15만5000t 늘어난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햇양파 수확철을

앞두고 선제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4월 초부터 본격 출하될 것으로 보이는 조생양파 139ha, 9000t을 우선 시장격리하기로 했다.

또 품위가 떨어지는 저위품 자율 감축과 소비촉진 등 실효적 대책을 단계별 추진한다.

계약재배 농가에서 상품성이 있는 포전을 시장격리할 경우 991㎡(300평)당 204만9000원을 지급해준다.

지역농협에서 대상 농가의 신청을 받

아 1차는 29일까지, 2차는 다음달 6일까지 먼저 조절 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

홍석봉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중만생종도 평년보다 10만6000t 과잉 생산이 우려된다"며 "조생종 양파 가격이 안정돼야 중만생종도 제 값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농가에서 시장격리에 적극 참여하고, 소비자들도 양파 소비 확대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 첫 공모 여성인권보호관 6명 응시

광주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공모한 여성인권보호관에 모두 6명이 응시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성희롱·성폭력 등 직장 내 여성 인권침해와 여성차별 사건에 대해 상담·조사를 전담할 여성인권보호관을 공모한 결과, 전국적으로 모두 6명이 지원했다.

서류전형은 지난 22, 23일 실시됐고,

최종 합격자는 다음달 초 면접심사를 거쳐 4월 중순에 결정된다.

지원자 중에는 법조인과 여성단체 활동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관련 고충 상담 분야에서 장기간 활동하며 전문적인 조사·상담 활동을 해온 여성인권보호관을 공모한 결과, 전국적으로 모두 6명이 지원했다.

여성인권보호관은 시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성차별·성희

롱 등의 고충에 관해 상담과 조사, 서비스를 상시 지원하게 된다. 또한 성차별 조직문화 전수조사를 해 직장 내 성평등 문화가 확산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게 된다.

광주시는 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신뢰를 갖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전문성, 피해자 비밀 보장이 가능한 인권운 부즈맨실을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여성인권보호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의 새이름

신세계안과

7월 1일 이름을 바꿉니다 (현 의료진 그대로)

- 2013년 3D스마일수술 도입
- 3D스마일수술 15,000건 기록 (2018년 2월 28일 기준)
- 레이저 다초점 노안, 백내장 교정술 시행

1566-9988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에너지관리공단 90% 융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농협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 땅만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